

글로벌 제주를 위한

해외 주요 정책동향

International Policy Trends

No. 32



Contents

※ 정책뉴스 출처 : 中国新闻网, 中国经济网, KIEP AIF, 日本經濟新聞

※ 대상 기간 : 2025.03.13.-2025.03.19

1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요약	1
2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주요 내용	7
	▪ 중국	
	- 7개 지역, 디지털경제 혁신발전 시범구 승인	7
	- ‘인공지능+’ 추진, 디지털무역 고품질 성장 촉진	7
	- 15개 부처, 중소기업 규범적 관리체계 강화	8
	- 하이난, 면세 쇼핑 누적 2,500억 위안 돌파	8
	- ‘2024년 중국 자연자원 공보’ 발표	9
	- 위험폐기물 처분 역량 제고, 환경 안전 강화	9
	- ‘인공지능 합성콘텐츠 표기 방법’ 발표, 건강한 AI 발전 전망	10
	- 베이징, 61개 지방 표준 개정 계획 발표	10
	- 소비 진작 종합조치 해설, 내수 확대 실천 강조	11
	- 민영기업 금융지원 강화 방안, 은행업계 공동 제안	11
	▪ 일본	
	- 홋카이도 방문객 3% 감소, 3101만 명 기록	12
	- 히타치시와 히타치, 스마트시티 협력으로 의료 디지털화	12
	- 에히메현 사이조시, 2026년도 산업용지 확보 추진	13
	- 환경성, 자동차용 재생플라스틱 2031년에 연 2.5만 톤 목표	13
	- 지자체 절반, 장학금 반환 대납 지원으로 청년 정착 유도	14

- JAL, 이즈모 공항 작업차량에 바이오 100% 연료 도입	14
- 도쿄도 시행 맨션, 투기 목적 구매 억제 대책 요청	15
- 시즈오카현 아타미, 생성 AI로 인바운드 공략 본격화	15
- 페이테츠버스·이데미츠, 바이오연료 버스 실증 추진	16
- 니가타현, 2040년까지 수소 활용 거점 4곳 구축 비전 제시	16
▪ 베트남	
- 베트남, 전기차 등록세 면제 기간 2027년까지 연장	17
- 베트남, 미국 기업들과 40억 달러 규모 협약 체결...관세 우려 속 경제협력 강화	17
▪ 싱가포르	
- 싱가포르와 태국, 5건 양해각서 체결로 협력 강화	17
- 싱가포르와 베트남,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18
▪ 캄보디아	
- 캄보디아, 호주와 에너지·광업·투자 기회 논의	18
- 캄보디아, AI 기반 경제성장 준비 착수	19
▪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생산성 유지 위해 팜유 농장 재식재 계획 수립 촉구	19
- 말레이시아, 지역 무역·금융·기술 허브 역할 강화 추진	19
▪ 필리핀	
- 필리핀, 전략적 투자로 약 30만 개 일자리 창출 목표	20
- 필리핀, 2029년까지 15번째 무역 성장국 전망	20
- 필리핀 대통령, 농민 협동조합 결성 촉구...농업 부문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추진	21
- 필리핀, 정치 불안으로 경제 잠재력 저해...싱크탱크 분석	21

1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요약

○ 중국

- ✓ 중국 국가데이터국은 텐진시, 허베이성(승안신구),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광둥성, 쓰촨성 등 7개 지역을 디지털경제 혁신발전 시범구로 승인, 데이터 요소 시장화 개혁과 인프라 최적화, 핵심 디지털 기술 돌파 등 5대 과제를 순차적으로 전개 예정
- ✓ 중국 정부는 ‘인공지능+’ 정책을 디지털무역 분야에 적극 추진하여 무역 경쟁력을 높이고, 데이터 유출·모델 불투명성·국제 규범 파편화 등 난관을 해소 추진, 이를 통해 수출입 기반을 안정화하고, 앞으로 AI 거버넌스 정비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외국 무역의 성장 동력 강화
- ✓ 공업정보화부 등 15개 부처는 ‘중소기업 규범적 관리체계 강화에 관한 지도 의견’ 을 공동 발표, 2030년까지 중소기업의 법 준수 의식과 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고, 노동력 고용·재무세무·지식재산 등 10대 핵심 분야에서 세부 지침과 지원 정책 제공
- ✓ 최근, 하이난의 면세 쇼핑 누적 금액이 2,501억 위안을 기록, 면세 한도 상향과 품목 확대, 항공·철도·선박 등 다양한 출도 수단을 아우르는 면세 정책으로 관광과 소비 수요가 크게 증가세
- ✓ 자연자원부는 ‘2024년 중국 자연자원 공보’ 를 통해 경작지 12,860.88만 헥타르 등 토지 변동 데이터 제시, 석유·천연가스·광물 등 173종 광물 자원 현황과 해양·임업 산업 생산 성과, 대규모 생태 복원 사업 추진 상황 등 공개, 자원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제시
- ✓ 생태환경부는 ‘위험폐기물 환경관리 강화 및 위험 방지에 관한 의견’ 발표, 이를 통해 위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전 과정의 정보화를 중점

추진하고, 적정 처리 시설 확충과 의료폐기물 등 특별 폐기물 안정적 처리 체계 구축으로 환경 안전 수준 제고

- ✓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등 4개 부처는 ‘인공지능 합성콘텐츠 표기 방법’을 발표해 생성형 AI·딥페이크 등으로 인한 가짜정보 확산을 억제하고, 서비스 제공자가 시각 표기 및 워터마크 등 숨김 정보를 활용하도록 규정, 이를 통해 AI 기술 남용 위험을 줄이고 신뢰도를 제고 하는 계획
- ✓ 베이징시는 ‘수도 표준화 발전 강요 2035’에 따라 61개 지방 표준 개정 계획 발표, 공정 거래, 노동 서비스, 노인 돌봄, 안전 생산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더욱 엄격한 표준을 적용하여 표준 상호 연계를 통한 지역협력과 산업 서비스 수준 향상할 계획
- ✓ 최근 중국 정부는 ‘소비 진작 특별행동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주민 소비 능력 제고, 고품질 공급 확대, 소비 환경 개선 등 8대 분야 30개 과제를 추진하고, 단기·장기 정책을 결합해 내수를 확대하여 경제 성장과 민생 개선 목표를 달성할 계획
- ✓ 중국은행업협회와 전국공상연합은 ‘은행업 금융기관의 민영경제 고품질 발전 지원에 관한 공동 제안’을 발표, 민영기업 대상 대출 확대, 융자 비용 절감,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 등 혁신 서비스를 도입하여 민영경제 활력을 높이고 시장 다양성 확대

○ 일본

- ✓ 홋카이도는 2024년 4월부터 9월까지 방문객이 전년 대비 3% 감소한 3,101만 명으로 집계되어 코로나19 이전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나, 도 중부권과 남부권이 크루즈선 기항과 촬영지 효과 등으로 증가해 지역별 회복 움직임이 확인되며, 중국 인바운드가 완전 회복될 경우 전체 관광 수요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

- ✓ 이바라키현 히타치시는 히타치제작소와 협력해 4월부터 온라인 소아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 저녁·휴일 시간대에도 전문의 상담을 가능하게 하고, 그린산업·의료·교통 분야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전개해 시민 생활 편의와 도시 경쟁력 제고
- ✓ 에히메현 사이조시는 2026년도 중 새로운 산업용지를 마련하기 위해 국도 11호·현도 13호 인근 농지를 용도 전환하고, 반도체·축전지 등 첨단산업 유치를 추진해 기존 대기업 공장과 연계하며 지역 내 고용 창출과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계획
- ✓ 일본 환경성은 2031년까지 자동차 제조 과정에서 재생플라스틱 사용을 연 2만 5,000톤으로 확대하고, 2041년 이후에는 20만 톤 달성을 목표로 부품 공급망을 개선해 EU 규제 대응과 자원 순환을 동시에 추진하는 로드맵 발표
- ✓ 일본 지자체 약 절반이 장학금 반환 대납 제도를 도입해 지역 내 취업·정착 시 수백만 엔 규모의 장학금 부담을 지자체가 분담하여 청년층 이탈을 줄이고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이는 방안을 운영하며, 특정 분야 인력 유치에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추세
- ✓ 일본항공(JAL)은 시마네현 이즈모 공항에서 지상작업차량에 100% 농도 바이오디젤 연료를 도입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폐식용유 기반 자원 선순환을 실증하며, 향후 전 차량 확대와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저탄소 이행에 기여할 전망
- ✓ 도쿄도는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직접 시공하는 맨션 분양에서 다주택 투기 목적의 구매를 제한하고 실거주 중심 분양을 강화하여 집값 안정과 시장 과열을 방지함으로써, 센가쿠지역 30층 맨션 등 대규모 사업의 주택 공급 품질 제고 계획
- ✓ 시즈오카현 아타미시는 리쿠르트 자란 리서치센터와 협력해 생성형 AI로 해외 온라인 후기·검색 데이터를 분석하여 마케팅 전략과 다언어

번역을 개선하고, 하코네 등 인근 지역과의 차별점을 부각해 인바운드 수요를 회복시킬 계획

- ✓ 메이테츠버스와 이데미츠코산 등은 4월부터 명철 버스센터와 미에현 나가시마 온천을 오가는 고속버스 1대에 리뉴어블 디젤을 공급 시작, 이는 경유 대비 유사한 연비를 유지하면서 연간 약 69톤의 CO2 감축 가능성 검증하고, 탈탄소 대중교통을 선도하는 사례로 꼽히는 실정
- ✓ 니가타현은 기업·학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통해 2040년까지 니가타히가시항과 나오에쓰항 등 4개 지역을 ‘수소 등 탈탄소 연료 활용 거점’으로 육성하고, 파이프라인 및 CCS(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과 연계해 대규모 에너지 소비 지역부터 점진적으로 수소 공급망 확립 계획

○ 베트남

- ✓ 베트남 정부는 전기차 등록세 면제 기간을 2027년 2월 말까지 연장, 전기차 구매 비용 부담 감소, 시장 수요 대응력 강화, 충전 인프라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국내 전기차 이용 보급을 촉진할 계획
- ✓ 베트남은 미국 기업들과 항공·석유·가스·석유화학 분야에서 40억 달러 규모의 협약을 체결, 무역·투자 협력을 증진하고, 대중·대멕시코 고율 관세 적용 가능성에 대비하여 시장 개방과 무역수지 개선을 통해 상호 이익 증진 도모

○ 싱가포르

- ✓ 싱가포르와 태국은 제7차 STEER 장관급 회의에서 5건의 MOU를 체결, 무역·투자·디지털 경제·기술혁신 등에서 협력을 심화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및 신산업 육성을 통해 양국 경제 성장에 기여할 계획

- ✓ 싱가포르와 베트남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SP)’ 로 격상하여 해저 케이블 및 디지털 연결성, 녹색산업단지 개발, 평화 이니셔티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며, 싱텔과 비엠텔 간 해저 케이블 프로젝트 등을 통해 역내 데이터 허브 구축을 추진하는 구상

○ 캄보디아

- ✓ 캄보디아 케오 라타낙 광업에너지부 장관은 호주 대사와 회담을 갖고 에너지·광업 인프라 구축 및 투자 기회 확대를 논의, 양국 간 70년간 지속된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광업 개발과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 공동 조성할 계획
- ✓ 캄보디아 국가과학기술혁신위원회(NCSTI)와 UN ESCAP은 ‘캄보디아의 AI 준비 태세’ 국가 포럼을 개최, 정부·학계·민간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AI 기반 산업 발전과 인력 양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8대 핵심 과제를 중점 논의

○ 말레이시아

- ✓ 말레이시아 농업상품부는 노령 팜유 나무의 생산성 하락을 해결하기 위해 재식재 비율을 현재 2.2%에서 4~5%까지 높여 산출량 안정화 추진, 또한, 말레이시아팜유위원회(MPOB)와 함께 세계 팜유 시장 경쟁력을 유지 방안 검토
- ✓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말레이시아를 역내 무역·금융·기술 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다니 경제 프레임워크(MADANI Economy Framework)’ 를 실행하고, 미국·중국 등 주요국과 개방적·실용적 외교를 유지하며 반도체·AI·암호화폐 등 첨단 분야 육성과 아세안 내 데이터센터 구축을 통합적으로 추진 예정

○ 필리핀

- ✓ 필리핀 대통령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는 30만 개 이상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윈스톱 액션 센터를 중심에 두고, 신재생에너지·디지털 인프라·식량안보·제조업 등 4조 6,000억 페소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부여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전략 제시
- ✓ DHL 트레이드 아틀라스 2025 보고서는 필리핀이 2029년까지 무역 성장률 기준 세계 15위권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며, 최근 5년간 129위에 머무르던 무역 성장률이 7% 안팎으로 도약해 아세안 시장의 활력을 재확인하는 실정
- ✓ 필리핀 대통령은 농민 협동조합이 정부 지원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건조기·제분소·창고·사일로 등 농업 인프라 구축과 관개·수자원 관리를 개선해 농가 생산성 증대와 시장 접근성 강화를 유도
- ✓ 필리핀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두테르테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와 마르코스 대통령·사라 두테르테 부통령 간 갈등으로 정치적 불안이 심화되면서, 장기 투자가 저해되고 제조업·수출 허브로의 발전이 지연되어 인구 배당 효과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상황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p>○ 7개 지역, 디지털경제 혁신발전 시범구 승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국가데이터국은 최근 톈진시, 허베이성(슌안신구),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광둥성, 쓰촨성 등 7개 지역을 국가 디지털경제 혁신발전 시범구로 승인. 데이터 요소 시장화 개혁, 인프라 최적화, 핵심 디지털 기술 돌파 등 5대 중점 과제를 순차 전개 - 각 시범구는 데이터 기반 실물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중요한 정책·개혁안·권한 위임 사항과 중점 프로젝트 목록을 확정. 구체적인 건설 방안 마련 후, 절차 승인 거쳐 시범 사업 본격 추진 계획 - 시범구들은 국제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디지털경제 발전을 촉진할 체제·메커니즘 혁신 추진. 국가데이터국은 향후 정책 지원 확대하며, 성숙 조건 충족 시 전국적 제도 전환 가속 추진
	<p>○ ‘인공지능+’ 추진, 디지털무역 고품질 성장 촉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디지털무역 분야에서 ‘인공지능+’ 정책 추진은 첨단 디지털기술과 무역 융합을 더욱 심화하며, 성장 잠재력과 혁신 역량을 높이는 핵심 수단으로 추진. 이를 통해 외국 무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 수출입 기반 마련 기대 - 그러나 AI 활용 시 데이터 유출 위험, 모델 복잡성에 따른 불투명성, 국제 규범 파편화 등 다양한 난관 존재. 예전대 DeepSeek 모델은 해석이 까다로워 결과를 신뢰해야 하는 민감 분야 활용에 일부 제약 발생 - 향후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무역 ‘인공지능+’ 행동 배치를 통합 조정하고, 부처 간 협력과 AI 거버넌스 체계 보완 필요. 산학연 협력을 통해 기술 혁신과 응용을 가속화하며, 관련 법제와 안전관리 제도 정비 전망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p>○ 15개 부처, 중소기업 규범적 관리체계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공업정보화부 등 15개 부처는 공동 발행한 ‘중소기업 규범적 관리체계 강화에 관한 지도의견’ 을 공동 발표 이는 2030년까지 중소기업 법적 준수 의식과 관리 능력 향상을 목표로 설정하고 노동력 고용, 재무·세무, 지식재산 등 10대 핵심 분야 집중 관리 예정 - 기업별 실태에 맞춰 위험 방지에 초점을 둔 합규범리 체계 구축 장려. 예컨대 노동법 준수, 지식재산 보호, 환경 기준 충족 등 세부 지침 제공해 중소기업이 확실한 내부제도 마련토록 지원 계획 - 정부는 ‘공동 이익 창출’ 관련 중소기업 서비스 행동, ‘기업 서비스 지원’ 계획 등으로 컨설팅, 교육, 위험 점검 등 다층적 규범적 서비스를 추진. 정부 구매 서비스, 서비스 마우처 등 지원책으로 규범적 관리시스템 체계화 촉진 예정
	<p>○ 하이난, 면세 쇼핑 누적 2,500억 위안 돌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이커우 세관에 따르면 2011년 4월부터 2025년 3월 16일까지 하이난 섬의 면세 쇼핑 누적 금액이 2,501억 위안에 도달. 면세품 소비자 규모는 4,500만 명, 거래량은 3억 1,800만 건을 기록하며 면세 시장 활황 양상으로 보이는 실정 - 하이난 면세 한도는 5,000위안에서 10만 위안으로 크게 상향 조정됐고, 면세 품목도 18개에서 45개 대분류로 확대. 항공, 철도, 선박 등 다양한 출도 수단을 아우르는 면세 정책 실시가 지역 관광과 소비 활성화에 큰 기여 예상 - 2025년은 하이난 자유무역항 봉쇄 운용의 해로, 세관 측은 도시 면세점 신규 정책을 최대한 활용해 다중 면세형태 발전 모색. 국제 관광 소비 중심 건설을 가속화하며 전 세계 여행객에게 매력적 쇼핑 경험 제공 전망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p>○ ‘2024년 중국 자연자원 공보’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자연자원부는 최근 ‘2024년 중국 자연자원 공보’ 를 발표, 경작지 12,860.88만 헥타르 등 주요 토지 변동 데이터를 상세 제시. 이는 국토 조사를 기반으로 자연자원 관리 성과와 발전 추세를 담은 핵심 자료임 - 2024년 말 기준 석유, 천연가스, 광물 등 173종 광물 발견, 중국 탐사권 1만 2,646개, 채굴권 3만 391개로 기록. 해양 산업 총생산은 10조 5,400억 위안, 임업 산업은 10조 1,700억 위안 달성, 전년 대비 각각 성장 확인 - 산수(山水) 공정 등을 통해 500만 헥타르 이상 생태 복원 진행, 해안선 400km, 연안 습지 3.1만 헥타르 정비 등 성과 강조. 국토 녹화 767만 헥타르 달성하며, 자연자원 보존과 친환경 관리 노력이 꾸준히 확대 계획
	<p>○ 위험폐기물 처분 역량 제고, 환경 안전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생태환경부가 ‘위험폐기물 환경관리 강화 및 위험 방지에 관한 의견’ 을 발표, 수집 편의화, 신속 전이, 정보화 관리를 중점 추진. 해당 조치로 위험폐기물 전 과정 통제 능력 제고, 잠재적 환경 위험 축소 기대 - 기업들과 지역 정부는 적정 처리 시설 확충과 처리 구조 최적화를 추진하며, 자원화 활용과 소각·물리화학처리 등 다양한 방식 조합 검토. 의료폐기물 등 특별 폐기물에 대한 안정적 처리 체계 구축도 병행 전망 - 차세대 정보기술로 폐기물 전 주기 추적·감시 시스템 구축이 핵심. 특히 2026년까지 주요 위험폐기물 생산·처리 기업 대상으로 전 과정 정보화 관리 전면 적용 목표. 이를 통해 위험폐기물 불법 투기 방지 기대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p>○ ‘인공지능 합성콘텐츠 표기 방법’ 발표, 건강한 AI 발전 전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국가인터넷정보관공실 등 4개 부처가 ‘인공지능 합성콘텐츠 표기 방법’ 을 발표,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 생성형 AI, 딥페이크 등으로 인한 가짜 정보 확산을 방지하고, 사용자 경각심 높이는 취지로 관리 강화 예정 - 규정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자는 메타데이터에 시각적 표기뿐 아니라 디지털 워터마크 등 숨김 정보 추가를 권장.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은 인공지능 합성 기능 여부를 명확히 표기하고, 관련 심사 기준을 강화 요구 - 전반적으로 합성콘텐츠 윤리와 표준을 법제화해, AI 기술 남용의 위험을 줄이고 신뢰도 제고 강화. 기업들은 표기 방식 준수와 모델 신뢰성 확보에 주력해야 하며, 사용자에게 새로운 AI 활용 체험 기회 제공 전망 <p>○ 베이징, 61개 지방 표준 개정 계획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이징시 시장감독관리국은 ‘수도 표준화 발전 강요 2035’ 이행에 따라, 61개 지방 표준의 개정 프로젝트를 확정 계획을 발표. 이는 공정 거래, 노동 서비스, 노인 돌봄, 안전 생산 분야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영역 포함 - 특히 ‘상품거래장소 공정 저울 설치·관리 규범’ 을 베이징·텐진·허베이·산시·네이멍구 등 지역협력 표준으로 격상. 소비자가 쉽게 공정 저울을 찾고, 사용하고, 분쟁 해결하도록 명확한 위치·안내 기준 마련 - 시는 공공직업소개, 공공직업지도 서비스, 노인 돌봄, 안전관리 시스템 등 주민 밀접 분야에서 더욱 엄격한 표준 시행 예고. 이를 통해 시민 생활 품질 높이고, 산업 내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정책 강화 전망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p>○ 소비 진작 종합조치 해설, 내수 확대 실천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정부는 ‘소비 진작 특별행동방안’ 을 발표, 이는 주민 소비 능력 제고, 고품질 공급 확대, 소비 환경 개선 등 8대 분야 30개 과제 제시. 내수 촉진을 통해 경제 성장 추진과 민생 개선 동시 실현 목적 - 단기적으로 가전·가구 등 소비 촉진책, 구직 지원, 생계 보장 강화 등으로 수요 확대 도모. 장기적으로 서비스 개방 범위 확장, 브랜드 육성, 녹색·스마트 소비 장려 등 구조 개선 통해 지속 성장 동력 확보 목표 - 재정·금융·세제·투자 등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수요와 공급 선순환 형성 추진. 기업 경쟁력 제고와 민생 편익 동반 성장을 유도하며, 고품질 발전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에 중점 두는 실행력 강화
	<p>○ 민영기업 금융지원 강화 방안, 은행업계 공동 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은행업협회와 전국공상연합이 ‘은행업 금융기관의 민영경제 고품질 발전 지원에 관한 공동 제안’ 을 발표. 민영기업 대상 대출 확대, 융자비용 절감, 차입 연장 등 중점 개선 방안 제시 - 제안은 과학기술형 민영기업·중소 영세기업 등 특성에 따라 맞춤형 금융 솔루션 제공을 강조. 특히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 인수합병 대출 시범 등 혁신서비스 발굴해 민영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 의지 표명 - 제안 내용은 은행·기업 간 장기적 소통 메커니즘 강화, 내부 위험관리 고도화, 기업 구조 개선 등 포괄적 협력 추진 강조. 최종적으로 민영경제 활력을 높이고, 시장 다양성 확대를 통해 경제 성장 견인 목표를 달성할 계획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p>○ 홋카이도 방문객 3% 감소, 3101만 명 기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4월부터 9월까지 홋카이도를 찾은 관광객이 총 3,101만 명으로 집계.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3% 줄어든 수치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로도 약 15% 감소한 상황. 특히 도내 거주자의 관광 활동 둔화가 뚜렷하며, 여행 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반동 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 - 외국인 관광객은 109만 9,400명으로 전년 대비 14% 늘어났으나, 중국 시장이 코로나19 이전 대비 약 60% 줄어 전체 인바운드는 20%가량 낮은 수준에 머무름. 이로 인해 중국 방문객 감소가 전체 해외 관광객 수 회복에 걸림돌이 된 모습으로 해석 - 삿포로·오타루·니세코 등이 포함된 중부권의 관광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하여 5,429만 명에 달함. 크루즈선 기항 증가와 영화 촬영지 효과로 남부권 역시 7% 늘어나 875만 명을 기록해 지역별 관광 수요가 서서히 회복되는 추세 <p>○ 히타치시와 히타치, 스마트시티 협력으로 의료 디지털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바라키현 히타치시가 히타치제작소와 협력해 4월부터 육아 가정에 온라인 소아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저녁이나 휴일 시간대에도 전문의와 상담이 가능해져 지역 의료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될 전망 - 2023년 12월에 맺은 포괄적 협정에 따라 그린산업 도시화, 디지털 건강·의료·간호, 공공교통 스마트화의 3대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 중임. 히타치가 개발한 자율주행차 시험 주행 등 시민 체험 행사도 함께 개최해 미래 도시 기술을 선보였는 실정 - 향후에는 건강검진 데이터를 익명화해 수집·분석하고, 인공지능(AI)으로 질병 위험을 예측해 주민들의 생활습관 개선에 활용할 계획. 시는 전담 조직을 부서로 격상하여 현·시·기업이 연계하는 스마트시티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p>○ 에히메현 사이조시, 2026년도 산업용지 확보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히메현 사이조시가 빠르면 2026년도 중 새로운 산업용지를 마련하기로 함. 국도 11호와 현도 13호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요사이조IC까지 이어지는 주요 도로 주변 농지를 대상으로 용도 전환을 검토 - 시는 2024년도부터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을 재검토하고, 2025년도에는 기업들의 구체적 입지 수요를 조사할 예정. 환경 부담이 큰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장 건립을 허용해 반도체·축전지 등 첨단산업 유치에 노리고 있는 실정 - 사이조시에는 이미 반도체 대기업 공장과 반도체 장비 업체가 입지해 있으며, 풍부한 물과 전력 인프라가 강점으로 꼽힘. 시는 기업유치 강화로 지역 내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기대
	<p>○ 환경성, 자동차용 재생플라스틱 2031년에 연 2.5만 톤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환경성이 자동차 제조에 사용하는 재생 플라스틱 부품을 2031년까지 연간 2만 5,000톤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제시. 2041년 이후에는 연 20만 톤 달성을 목표로 삼아, 부품 공급망 구축을 본격화할 예정 - 자동차 범퍼나 실내 부품 등 플라스틱 활용 범위가 넓은 만큼, 재생 플라스틱의 양적 확보와 품질 관리가 핵심 과제가 됨. 현재 일부 차종에 한해 재생 소재를 적용 중이나, 전체 볼륨으로 보면 아직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 - 유럽연합(EU)에서 신차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플라스틱으로 구성하자는 규제 도입 가능성이 논의되는 만큼, 일본 내 제조사들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공급 체계와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p>○ 지자체 절반, 장학금 반환 대납 지원으로 청년 정착 유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에서 대학생이 받은 장학금의 반환을 지자체가 대신 지원해주는 제도가 가파르게 확산. 2024년 기준 약 816곳, 즉 전체 시·구·정·촌의 절반 가까운 지자체가 이 제도를 도입할 예정 - 야마가타현은 35개 전 시정촌이 이러한 지원책을 운영하여, 해당 지역에서 취업·정착 시 수백만 엔 상당의 장학금 반환을 대납. 젊은 인재의 지역 이탈을 막고 향후 경제 활력을 높이려는 취지 - 의료·개호 등 특정 분야 인력 유치 목표로 타 지역 출신자에게도 폭넓게 혜택을 주는 지자체 사례도 늘어남. 전문가들은 지자체별 재정력 차이가 격차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제도 효과와 공정성을 정부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
일본	<p>○ JAL, 이즈모 공항 작업차량에 바이오 100% 연료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항공(JAL)이 시마네현 이즈모 공항 내에서 수하물 운반 등에 쓰이는 작업차량에 100% 농도의 바이오디젤 연료를 도입. 해당 연료는 주로 가정 등에서 수거한 폐식용유를 원료로 사용해 지역 자원 선순환에도 기여할 전망 - 현재 5대 중 3대 차량에서 월 120리터씩 바이오연료를 우선 적용하고, 향후 전 차량으로 확대를 추진할 계획. JAL은 탄소중립 실현과 함께, 사용 후 식용유를 활용해 연료를 생산·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產地消)’ 모델에 주목 - 바이오디젤 연료는 연소 과정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가 원료 생산 단계의 광합성으로 상쇄되어 실질적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 JAL은 이를 통해 지역 환경 보호와 저탄소 사회 전환에 일조한다는 입장으로 표명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p>○ 도쿄도 시행 맨션, 투기 목적 구매 억제 대책 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쿄도가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직접 시공하는 맨션 분양 시, 투기 목적의 다주택 구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 사업자에게 요구하기로 함. 부동산 투기 과열을 사전에 막기 위한 시도가 본격화된 것으로 분석 - 먼저 2031년도 완공 예정인 도쿄도 미나토구 센가쿠지역 인근의 30층 높이 맨션에 대해 투기 억제 방안이 적용될 것으로 보임. 앞서 선수촌 맨션 ‘하루미 플래그’에서도 다수 세대를 동시 신청하는 사례가 잇따라 경쟁률이 급등한 바 있는 실정 - 도는 분양 단계에서 1인 다세대 신청 제한 등 실거주 중심 배분 방침을 세울 것으로 전망됨.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행위를 억제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꾀하려는 목표로 설정
	<p>○ 시즈오카현 아타미, 생성 AI로 인바운드 공략 본격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즈오카현 아타미시가 리쿠르트 ‘자란 리서치센터’와 협력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인바운드 마케팅 강화에 나섬. 온라인 상의 해외 검색 및 후기 데이터를 AI로 분석하여 마케팅 전략과 다언어 번역에 활용할 계획 - 주변 유명 관광지인 하코네 등과 비교해 아타미의 장점을 부각하는 전략을 AI가 제안해주는 방식으로, 기존 대비 15분의 1 수준으로 번역·분석 시간이 단축되었다고 평가 - 시는 DMO(관광지역개발법인)와 관광협회, 숙박업계 등이 해당 AI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해외 홍보력을 끌어올리고자 함. 이를 통해 인바운드 수요를 확대하고, 코로나19 이후 침체했던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늘릴 전망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p>○ 메이테츠버스·이데미츠, 바이오연료 버스 실증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고야철도 그룹 산하 메이테츠버스와 이데미츠코산 등 세 곳이 경유 대체 연료로 바이오 ‘리뉴어블 디젤’ 을 도입한 노선버스를 운영하는 실증을 4월부터 시작함. 명철 버스센터와 미에현 나가시마 온천을 잇는 고속버스 1대를 우선 적용 대상에 두고 있는 실정 - 리뉴어블 디젤은 기존 경유와 유사한 연비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연간 약 69톤의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점이 특징임. 동해 지역의 대중교통에 바이오연료를 도입하는 첫 공공도로 실증 사례로 주목 - 메이테츠버스는 이번 실증 결과를 축적하여 다른 노선이나 타운수사와도 공유, 탈탄소 경영 확대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임. 이산화탄소 감축을 넘어, 업계 전반에 친환경 인프라를 확산시키겠다는 의도
	<p>○ 니가타현, 2040년까지 수소 활용 거점 4곳 구축 비전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니가타현이 기업·학계 등이 참여한 협의회를 열어 2040년까지 현내 4개 지역을 ‘수소 등 탈탄소 연료 활용 거점’ 으로 조성하겠다는 기본 구상을 발표. 특히 국제 항만인 니가타히가시항과 나오에쓰항을 선도 지역으로 삼아 정부 지원과 연계한 실증을 추진할 계획 - 발전소 등 에너지를 대량 소비하는 산업시설이 모여 있는 항만 주변부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2030년대 초반 사업화 모델을 확립하겠다는 목표. 이후 가시와자키·나가오카, 신바타·타이나이 등 내륙 지역에는 탱크로리를 중심으로 공급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 - 협의회에서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사업이나 수소 제조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참여해 협력 가능성을 모색함. 현은 이를 통해 공공·민간·학술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 차원의 대규모 탈탄소화를 선도할 계획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베트남	<p>○ 베트남, 전기차 등록세 면제 기간 2027년까지 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정부가 배터리 구동 전기차의 등록세 면제 기한을 2027년 2월 28일까지 연장 결정. 이번 조치는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고 친환경 전환을 가속하기 위한 정책으로, 전기차 수요 확대가 예상 - 이에 따라 수천만~수억 동 상당의 차량 등록 비용 절감이 가능해짐. 최근 연료비 상승 및 지속가능성 관심 증대로,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 - 빈패스트(VinFast) 등 현지 업체뿐 아니라 테슬라·BYD·현대차 등 글로벌 제조사들도 우대 혜택에 주목. 충전소 확충과 전기차 생태계 형성이 가속화될 것으로 관측
	<p>○ 베트남, 미국 기업들과 40억 달러 규모 협약 체결..관세 우려 속 경제협력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과 미국 기업들이 항공, 석유·가스, 석유화학 분야에서 40억 달러 상당의 협약 체결. 대규모 합의를 통해 양국 무역·투자 협력이 한층 공고해질 전망 - 베트남은 미국의 대중·대멕시코 고율 관세가 자국에도 적용될까 우려하며, 무역수지 개선·시장 개방 확대 등으로 미국 측 관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의지 표명 - 베트남 총리는 LNG·농산물·첨단제품 수입 시 관세 조정을 검토 중임을 시사. 2024년 미국은 베트남 최대 수출시장으로, 상호 무역 적자 해소와 지속적 교류가 핵심 과제로 부상
싱가포르	<p>○ 싱가포르와 태국, 5건 양해각서 체결로 협력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이 제7차 싱가포르-태국 경제관계 강화(STEER) 장관급 회의에서 총 5건의 MOU 체결. 무역·투자 협력 확대와 함께 경제적 시너지 창출이 기대 - 체결된 MOU는 민간 부문 간 교류 활성화와 신산업 부문 협력을 중점으로 함. 디지털 이코노미, 기술혁신 등 분야에서 양국이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싱가포르	<p>상호 보완적 성장을 도모할 전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국은 2025~2027년 지식재산권 협력 계획을 수립해, 혁신 보호와 경쟁력 강화에 주력. 이번 협약으로 태국과 싱가포르 간 다각적 경제 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평가
	<p>○ 싱가포르와 베트남,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가포르와 베트남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SP)’ 로 격상하기로 합의. 외교·경제·기술 전반에 걸쳐 양국 협력을 심화하며 역내 중요한 파트너십 구축 - 해저 케이블 및 디지털 연결성 등 6건의 협정이 체결되어, 베트남 비엠텔과 싱가포르 싱텔 간 해저 케이블 개발도 추진. 동남아를 아시아-유럽 간 데이터 허브로 키우는 기반 조성 - 양국은 녹색 발전, 산업단지 확장, 평화 이니셔티브 등 다양한 협력 구상도 함께 논의. 싱가포르는 베트남 최대 투자국 중 하나로, 상호 경제 협력 시너지가 지속 확대될 전망
캄보디아	<p>○ 캄보디아, 호주와 에너지·광업·투자 기회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캄보디아 케오 라타낙 광업에너지부 장관이 호주 대사와 회담을 갖고 에너지·광업 분야 협력을 모색. 양국은 지난 70년 동안 평화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투자 확대 및 책임 있는 광업 개발 논의가 이루어지는 실정 - 호주는 캄보디아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중요한 파트너로서, 광업 인프라 구축과 투자 유치에 적극 협조 계획. 미래 지향적 산업 생태계 마련에 기여하겠다는 의지 표명 - 캄보디아 정부는 이러한 동반자 관계가 차세대에 지속 가능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평가. 양국은 상호 존중과 공동 목표를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관계를 심화할 전망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캄보디아	<p>○ 캄보디아, AI 기반 경제성장 준비 착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캄보디아 국가과학기술혁신위원회(NCSTI)와 UN ESCAP이 ‘캄보디아의 AI 준비 태세’ 국가 포럼 개최. 정부·학계·민간 등 약 200명이 참석해 AI 혁신 잠재력과 경제적 활용 방안 집중 논의 - 산업과학기술혁신부(MISTD)와 NCSTI는 국가 AI 전략 마련을 진행 중이며, 생산성 제고와 인력 양성, 디지털 인프라 개발 등 8대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 - 포럼에서는 AI 활용으로 인한 윤리적·제도적 과제도 제기. 그러나 장기적으로 캄보디아 경제 다각화와 경쟁력 상승에 기여한다는 긍정적 기대가 커지고 있음
말레이시아	<p>○ 말레이시아, 생산성 유지 위해 팜유 농장 재식재 계획 수립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레이시아 농업상품부가 노령 팜유 수목의 생산성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농장주들에게 재식재 계획 수립을 독려. 수령 25년 이상인 나무는 수확이 까다롭고 산출량이 떨어지는 문제 제기 - 현재 재식재율은 2.2%로 권장 수준 4-5%에 못 미쳐 산업 생산성에 악영향. 말레이시아팜유위원회(MPOB)는 최근 3년간 헥타르당 신선과실송이(FFB) 수확량이 증가 추세지만, 장기적 안정을 위해 재식재 확대가 필수라고 강조 - 정부는 재식재 촉진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략적 지원책 마련에 주력. 이를 통해 말레이시아 팜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 <p>○ 말레이시아, 지역 무역·금융·기술 허브 역할 강화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가 역내 무역·금융·기술 허브로서 말레이시아의 입지를 재정립하겠다는 비전 발표. 미국·중국 등 주요국과 개방적이고 실용적인 관계를 이어 국가 이익을 극대화 계획 - 말레이시아는 ‘마다니 경제 프레임워크(MADANI Economy Framework)’로 경제 회복력과 성장 기반을 마련. 2024년 GDP 5% 이상 달성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말레이시아	<p>850억 달러 외국인 투자 유치 등 주요 지표에서 성과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반도체 전략 등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역할을 확장하고, AI·암호화폐 등 첨단 혁신 분야도 적극 육성. 아세안 내 데이터센터 구축과 디지털 자산 선도국으로의 도약을 목표
필리핀	<p>○ 필리핀, 전략적 투자로 약 30만 개 일자리 창출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다각적인 전략적 투자를 통해 3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목표를 제시. 원스톱 액션 센터(One Stop Action Center)를 중심으로 정부 지원을 집중 추진 - 총 4조6,000억 페소 규모, 190여 건의 인증 투자 프로젝트 중 신재생에너지·디지털 인프라·식량안보·제조업이 핵심. 라오아그 태양광발전소, 대형 데이터센터 건설 등이 대표 사례로 언급 - 정부는 절차 간소화와 자동화를 담은 ‘그린레인 구성 행정명령 18호’를 출범. 이를 통해 투자 유치와 국가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실현할 것으로 기대 <p>○ 필리핀, 2029년까지 15번째 무역 성장국 전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HL 트레이드 아틀라스 2025 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이 2029년까지 무역 성장률 기준 전 세계 15위권에 오를 것으로 예측. 이는 최근 5년간 129위에서 대폭 상승하는 결과 - 과거 1% 내외였던 필리핀 무역 성장률이 향후 5년간 7% 수준으로 높아지며, 무역 규모 역시 68위에서 30위권으로 상승 전망. 아세안 내 경제 활력 회복이 두드러지는 실정 - 필리핀은 베트남·인도네시아·인도 등과 함께 무역 성장 속도 및 규모에서 주목할 만한 국가로 부상. 공급망 다변화 환경에도 아시아 시장의 탄탄한 성장세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 상황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p>○ 필리핀 대통령, 농민 협동조합 결성 촉구...농업 부문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농민 협동조합이 정부 지원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고 강조. 협동조합 확대를 통해 농어민 지원과 농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계획 - 정부는 건조기·사일로·창고·제분소 등 필수 농업 인프라 구축에 재원을 투입하고, 관개·수자원 관리 강화로 농지 생산성 개선 추진. 이를 통해 농민 실질 소득 안정에 기여할 방침 - 소로소로 이바바 개발협동조합(SIDC) 곡물 터미널이 대표 사례로 주목받으며, 시장 접근성 제고와 농가 수익 증대 모델로 평가. 민관 협력이 농업 부문 혁신을 이끌 것으로 기대
필리핀	<p>○ 필리핀, 정치 불안으로 경제 잠재력 저해...싱크탱크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 영장 발부와,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사라 두테르테 부통령 간 갈등으로 필리핀 정치 불안 가중. 제도적 안정이 흔들리며 경제에도 파장이 예상 -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 필리핀이 역내 수출 허브로 성장하지 못한다고 평가. 인프라 투자 부족과 불안정한 정세 탓에 베트남 등 경쟁국 대비 성장이 더딘 편으로 우려 - 생산가능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인구 배당’ 시기에 돌입했으나, 불확실한 정치 환경이 장기 투자를 저해. 제조업 강화를 통한 고용 창출과 안정적 비즈니스 환경 조성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

※ 본 발간물은 온라인 상의 자료를 재정리한 것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